

우리나라 사서직의 역사적 발전: 1961년에서 1979년까지*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ianship in South Korea: From 1961 to 1979

조 찬 식 (Chan-Sik Cho)**

목 차

- | | |
|-----------------|--------------------|
| 1. 서 론 | 4.1 도서관법의 제정 |
| 2. 이론적 틀 | 4.2 도서관 봉사의 질적 향상 |
| 2.1 사서직과 사회 | 4.3 도서관학의 발전 |
| 2.2 발전의 사회학 | 4.4 협회와 학회의 활동 |
| 2.3 사서직의 발전 | 5. 사서직 발전의 원동력 |
| 3. 역사적 배경 | 6. 사서직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
| 4.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 | 7. 결 론 |

초 록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은 사회적 기구이며 사회의 여러 요소와 함께 영향을 끼치며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은 역사적·사회적인 과정이며 그 사회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발전기인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사회의 발전이란 맥락 속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발전을 사회-역사적(socio-historical)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1) 그 당시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을 살펴보고, (2) 이러한 사서직과 정치, 경제, 문화등과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뒤, (3) 사서직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사서직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본 학회 춘계발표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 96. 7. 30

ABSTRACT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is a part of society, and has both affected and been affected by other social forc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librarianship is a social as well as historical process within society.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ianship: South Korea from 1961 to 1979 in the context of social development through the use of socio-historical analysi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1) the development of librarianship in South Korea in a specific time period; 2) the analysis of social forces influencing librarianship,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nd 3)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librarianship and that of other aspects of society. According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anship and society.

1. 서 론

사회적 산물로서의 도서관은 문헌과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이러한 도서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변화와 영향 속에서 존재해왔다.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이란 도서관을 운영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도서관과 그 이용자를 연결하며 다른 전문직과 같이 사회의 변화와 상호관계 속에서 지속되어왔다. 그러므로 사서직의 전문성은 사회,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한 사회의 사서직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연구됨으로써 사서직과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던 때이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단순히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나 수치적 증가로 묘사한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은 사회구조적, 문화적, 교육적 변화에 기인하며 사회기구 및 많은 전문직의 성공적인 출현과 발전에 그 근거를 들 수 있다. 이에 이 시기의 사서직의 발전을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사서직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사회 및 사회발전을 이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전기인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사회의 발전의 맥락 속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발전을 사회 역사적(socio-historical)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1) 그 당시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을 살펴보고, (2) 이러한 사서직과 정치, 경제, 문화 등과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뒤, (3) 사서직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직을 사회적 기구 안에서 문헌이나 도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연관된 전문직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전문직의 구성요건인 (1) 법적 기반의 확립, (2) 사회에의 봉사, (3) 조직화된 지식 및 교육 기관의 존립, (4)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학회나 협회, (5) 대중의 인식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Hanks & Schmidt, 1975; Myers, 1986; Shera, 1972).

그동안 사서직의 발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으며 각각의 연구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서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회 역사적 이해 및 해석이 결여되어 마치 나무는 많으나 그 나무가 위치한 숲이 없는 듯하여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인식이 부족하였다. 사회 역사적 분석의 연구방법은 한 사회와 그 사회 속의 기구 또는 현상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때 그 관계를 나타내주며 그에 따라 한 사회 속에서 사서직의 발전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2. 이론적 틀

2.1 사서직과 사회

도서관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된 사회의 산물이자 사회적 기구이다. 문명사회의 역사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인간이 시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과거와 현재 사회의 지식을 어떻게 저장·보관하는가 또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하는가 등의 문제들은, 고의적이든 자아 발생적이든,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당시 존재의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사회적 장치를 고안케 하였다. 물론 이러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즉 축적된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계속 전달되지 않는 사회는, 지체되고 정체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중의 하나가 도서관이다. 그러므로 이런 도서관은 사회의 존립, 성장 등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어온 사회적 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은 행동과 사고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하나의 방법이 된다. 한 사회에서 지식이 전달되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말, 몸짓 등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사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나 몸짓의 커뮤니케이션은 공간적이며 인간의 편견이나 기억력 한계로 인하여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다. 반면 글이나 문자를 통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회의 통합된 사고를 기록하여 세대간에 또는 사회간에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기록정보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한 종이

매체를 떠나서 비도서자료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기록정보의 문화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이렇게 기록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보존함으로써 하나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며,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와 영향 속에서 존재해 왔다.

사서란 도서관과 사회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고 가능한 자원과 재원을 이용하여 사회의 지적 요구에 응한다. 일반적으로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 봉사라는 측면으로 사회와 연결이 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 체제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사회와 상호교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서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서관 봉사를 통하여 도서관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되며 사회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사서직이란 사회의 하나의 전문직인 것이다. 물론 최근의 전문직의 사회학은 전문직/비전문직의 이분법보다는 한 직종의 전문성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사서직의 경우 어느 면으로든지 그 전문직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사서는 상기의 도서관 봉사를 행하는 지식, 철학, 이론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실제 문제에 해결할 기술과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사서는 이러한 도서관 봉사에 따른 책임과 제한이 따르기에 하나의 전문직으로 또는 사서직의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은 사회와 함께 지속되어온 연속체(continuum)이다. 즉 사서직의 도서관 봉사를 통한 사회에의 봉사는

사회의 변화에 상호영향을 끼치며 존재해온 역사적인 사회의 집단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기구로서의 도서관이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에 따라서 사서의 역할 또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은 그 사회, 그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연속체로서 역사적으로 고찰·분석될 때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2.2 발전의 사회학

발전의 사회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0년대 개발도상국가들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터이다(Horowitz, 1972). 개발도상의 제3세계들은 후에 정립된 근대화라는 개념하에 자국의 발전을 피하게 되었으며 근대화의 이론은 모든 나라들이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하나의 상승 과정을 거쳐서, 서양 특히 미국의 형태를 따라가는 것을 가정하고 그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근대화의 이론에 의하면 개발도상국가들은 먼저 발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통적 가치관, 사회 기구의 폐쇄성, 자본의 부족, 기술의 지체성 등을 말하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저개발의 상태에 머무르거나 더욱 퇴보하게 되고 만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전의 사회학은 크게 세가지로 그 맥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 발전이론이다(Patterson, 1977; Eisenstadt, 1973, 1974; Smelser, 1973; Moore, 1963;

Lerner, 1964; Inkeles & Smith, 1974). 사회·문화적 발전이론은 무엇보다 개발도상국과 개발국 사이의 유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개도국들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늦을 뿐 이미 서구의 발전과정을 답습한다고 보고있다. 그들은 주로 도시화, 국가기구설립, 직업 또는 지역적 구조, 교육등의 과정에서 구조적 차별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환기에 있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구조적·문화적 특성에서 발전의 조건을 찾아내고 설명하여 발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신고전주의 경제이론(neo-classical economic theory)이다(Domar, 1957; Lewis, 1955; Robinson, 1962; Solow, 1970).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어 발전을 설명하려 하였다. Adam Smith에서 비롯된 자유방임형의 고전 경제주의와 달리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그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도상국의 특질인 자본의 부족, 풍부한 노동력, 자원의 부족 등을 극복함으로써 산업화를 통한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구조적 변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전체적 발전의 이해에 일조하였다 할 수 있다.

셋째, 정치발전이론이다(Apter, 1967; Almond & Verba, 1963; Pye, 1966; Huntington, 1968). 정치발전이론가들은 개발도상 국가의 저조한 정치참여, 국가기구의 부재,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사회 발전에 기본적인 장애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정치적 기구의 설립 이전에 대중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당이나 관

료주의가 확립된 후에 그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치 발전이론은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크게는 근대화의 원동력으로, 구체적으로는 산업화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았다.

위의 발전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은 사회가 발전한다는 점을 각각 다른 면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 모두 사회전체의 발전을 논하고 있다. 즉 사회의 발전이란 이러한 정치·경제·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발전요소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사회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Smelser에 의하면,

“발전이란 성장의 정도에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포함하며 이러한 발전의 속도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가속된다. 한 사회 기구의 변화는 다른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은 새로운 노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과 훈련기관의 변화 또는 조정을 유도하며, 다시 이런 교육, 훈련기관에서 말은 숙련되고 교육받은 인력의 양산은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관리를 위한 정치적·경제적 조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1968, 148).”

이러한 점에서 발전이란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사회전체의 움직임이며 그 과정이라 할 것이다.

2.3 사서직의 발전

사회의 기구로서 사서직은 사회의 정치·경

제·문화적 요소와 연관되어 존재하며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서직의 의미는 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면서 국가의 발전과 무관치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어온 역사적 과정이며 바로 사회의 제반 요소들과 상호 작용해왔던 경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직의 발전이란 단순한 의미 또는 단면적인 사서직의 수치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직의 발전이란 사회전체의 발전에서 도서관 또는 사서직 중심으로 본 총체적 과정인 것이다.

사서직의 발전이란 사회의 발전과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할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사서직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과 별개일 수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서직의 발전이란 그 사회의 전문직의 하나로서 사회를 지탱하고 진척케하는 사서 중심적 사회 발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사서직의 발전이란 다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는 사회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이란 다른 사회 발전과 동떨어져 설명되어서도 안되며 다른 사회 기구의 발전속에 축소 설명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사서직의 발전은 사회의 다른 전문직이나 구성요소들과 발맞추어 독립적이나 상호 연관된 가운데 일어나는 사회발전 과정인 것이다.

사서직의 발전이란 도서관의 의미가 각별한 시대에 사회 발전의 한 지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서직의 발전이 어떤 의미로든지 기존의 다른 사회 발전의 설명과 대치하거나 거부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사서직의 발전이란 다른 사회 구성요소들의 발전의 과정과 결과를 이용하고 보충하며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서적의 발전이란 다른 기준의 사회 발전의 측면에 보완적으로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서적의 특성상 여타의 사회 발전 측면과 다른 접근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서적의 발전은 사회 전체의 발전이란 사회의 상호 다른 요소들이 서로 차이와 통합(differentiation-and-integration)의 원리에 의하여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현실적 비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속에서 사서적의 발전이란 지식의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서적의 발전의 외면화(externalization)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Berger, 1972). 사서적의 발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사회 발전과 연계시킴으로서 사서적의 발전에 대한 자체 내면화(internalization)와 함께 사서적 발전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사서적의 발전은 시간에 따라 계속 이해되어 객관화(objectivation)의 과정을 거치며 그 설명과 이해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적의 발전에 대한 이해의 완성은 사서적의 발전을 사서적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그것이 역사적·사회적으로 설명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해진다는 점에 그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3. 역사적 배경

1961년 군사혁명으로 시작된 박정희 중심의 권위주의 정부는 민정이양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초 정부적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고 헌정 중단,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규제, 검열

강화 등의 정치적 간섭을 하였으며 곧 이어 대북 방첩 활동을 위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1963년 민정이양은 '한국적 민주주의'란 슬로건처럼 속이 없는 포장이었으며, 계속되었던 박정희의 제 3공화국은 1972년 국내외 상황 변화를 이유로 종신 독재체제인 유신정국의 제 4공화국으로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계속 되었던 권위주의적 정치 체계는 계속되는 사회 불만, 학생과 지식인들의 시위 등을 야기시켰으며, 결국 1979년 중앙정보부장 에 의한 박정희의 피살로 귀결되었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상징이었던 박정희의 피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잡한 심경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유신의 체제가 마감되는데 대한 기대감과 3공, 4공에 걸치는 기간에 이루어졌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취에 대한 만감의 교차였다(Eckert, 1990: Nahm, 1988).

군사혁명으로 시작되었던 박정희 정권은 처음부터 정통성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국가의 경제적 부흥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당시 국민 1인당 GNP가 \$100도 안되는 상황에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우선정책은 국민의 일반적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권위주의하에서 경제 안정은 민주주의를 대신하여 국가적 우선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1961년 경제기획원의 설립을 필두로 착수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계획경제의 대표적인 사업이었으며 정부 주도하의 자유경제체제가 운영되었다. 박정희 통치기간 내내 계속 되었던 5개년 계획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박정희 피살 후에도 그 결실은 계속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군

(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에 진입하게 되었다(Haggard, 1990; Lim, 1985).

이러한 경제 발전은 전문관료를 등용한 개발계획의 수립, 경제계획 실행을 위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경제기획원을 위시한 주무부서의 증설,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화 정책, 수출 중심의 산업화, 새마을 운동을 통한 근대화, 교육투자를 통한 고급 노동력 양성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 및 국제관계 등이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가능케 하였다.

4.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

박정희 주도하의 권위주의 정부 기간은 우리나라 사서직도 전문직으로서의 요건들이 갖추어지고 발전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발전은 사회 변화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 변화에 상호 영향을 미치며 사서직을 사회와 공존하는 전문직으로 받들음게 하였다.

4.1 도서관법의 제정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의 법적인 보장의 필요를 느낀 것은 1955년 한국 도서관 협회가 재결성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도·협의 계속되는 도서관계의 입법의 노력은 1958년 국회의 2·5 정치파동과 1960년 4·19혁명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1961년 6월 10일 도·협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도서관법의 제정·공포를 건의하였으며 6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위원회에서 도서관법의 토의를 시작하였고

1961년 8월 초순 국가재건최고회의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도서관법안의 심의를 일단 마무리 짓고 문교부로 송부하였다. 그 이후 1963년 7월까지 도·협과 문교부와 법제처 그리고 한국출판협회가 그 안을 토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한편 군사력을 앞세우고 집권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회유 차원에서 문화진흥을 주창하고 있었으며, 1963년 10월 5일 도서관법의 최종심의를 마치고 10월 28일 도서관법을 공포함으로써 8년간 계속되어왔던 도서관법 제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도서관협회, 1977).

법 제 1424호로 공포된 도서관법은 2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벌칙등 4개의 주제(章)와 부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주제는 1조부터 13조까지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둘째 주제는 14조부터 24조까지 공공도서관에 관하여, 셋째 주제는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학교 도서관에 관한 것으로 25조에서 27조까지, 법칙 조항은 28, 29조에 수록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특히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사서배치가 의무조항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법중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도서관법이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서관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의 창달을 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2조(정의)에서는 도서관을 “도서, 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

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하여 그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레크리에이션 기타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명시하여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개념을 확립하였다. 사서의 배치에 관하여는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케 하였다. 그외에도 제12조(도서관자료의 제공과 납보), 제13조(도서관 협회), 제15조(공공도서관의 기능), 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제25, 26조(학교도서관 시설, 직원)등을 명시하여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과 법적인 지위를 제고시키고 아울러 이러한 도서관의 부흥을 통한 국가경제, 문화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3년의 도서관법은 1969년 11월 3일 대통령령 제4191호로 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과 1969년 7월 19일 문교부령 제236호로 발효된 도서관법 시행규칙 그리고 연이은 개정과정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게 수정, 보완되었다. 이러한 도서관법의 내용이 사회의 인식과 경제적 연유로 그대로 다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도서관계와 사서직의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4.2 도서관 봉사의 질적 향상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봉사를 그리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서

직의 봉사 역시 생소한 개념이었다. 비록 국립도서관에서 1957년부터 참고봉사업무가 시행되었으나 사서의 경험 부족과 이용자들의 인식의 부족으로 다분히 그 이름만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60년 후반부터는 대학도서관과 특수도서관 중심으로 본격적인 참고봉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목록봉사, 색인 및 초록봉사는 이러한 참고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국회 사무처, 1987; 정병완 & 신학규, 1971). 아울러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도서관의 개가식 운영은 도서관의 이미지를 보다 근대화 시켰으며 몇몇 대학 도서관과 전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상호대차봉사는 도서관 봉사의 의미를 더욱 발전시켰다.

도서관봉사의 분야별로는 과학 기술분야에서 정보봉사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의 출현이다. 국가최고재건회의와 경제기획원이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그 가운데 '5개년 과학기술진흥안'이 포함되어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 국가 발전과 연계되었고 이에 국가최고재건회의는 과학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UNESCO는 1950년 제 5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에 대하여 과학 문헌 정보센터의 건립을 충고하였는데 이는 파리에서 열린 1958년의 10차 총회와 1960년의 11차 총회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아세아 과학 문헌 세미나(Asiatic-Science

Bibliographic Seminar)에 참석한, 당시 UNESCO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인 장세원과 최기철 서울교대 교수는 1952년 UNESCO의 도움으로 설립된 인도의 국가 문헌 센터 (INSDOC: Indian National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를 방문하여 과학 정보센터에 대한 개념을 피부로 느끼고 귀국 후 과학 정보센터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되었으며, 마침 국가경제 5개년 계획과 5개년 과학기술 진흥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방법을 모색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이해가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유네스코, 1984). 이에 군사정부는 UNESCO 본부에 한국에서의 과학 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며 개도국의 과학정보센터 건립에 지원을 해오던 UNESCO의 도움으로 1962년 1월 1일 한국 UNESCO위원회 내에 KORSDOC(KORea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를 건립하기에 이르렀으며 동년 4월 1일 KORSTIC으로 개명한 뒤 정부, 산업체, 학교에 전면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KORSTIC의 과학기술 분야의 도서관 봉사는 1962년 7월 불란서 과학 연구소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에서 J. Garrido박사의 방문 지도와 1963년도 2차에 걸친 일본의 JICST(Japan Information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파견연수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과학기술정보센터, 1972). 한편 문교부와 경제기획원, 국회도서관 그리고 KORSTIC간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1964년 KORSTIC은 UNESCO에서 분리, 문교부에 관할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과 발맞추어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1967년 정부는 과학 기술처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KORSTIC은 다시 과기처로 이관되고 1968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이후락이 KORSTIC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과학기술 정보봉사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69년 제정 공포되고 1972년에 개정된 KORSTIC 진흥법에 의하여 KORSTIC은 사실상 과학기술 분야의 국립도서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국내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센터로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봉사는 물론 KORSTIC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66년에 미국의 원조로 설립된 KIST(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1967년 7월 14일 도서관과를 설치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였고 같은 연구단지내에 위치하였던 KAERI(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나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등도 과학, 기술, 에너지 등의 분야에 정보봉사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제공기관간에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원활한 봉사를 꾀하게 되었다. 1974년의 대덕 과학단지의 완성은 이러한 과학기술분야의 정보봉사를 질적, 양적으로 더욱 향상케 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봉사의 향상은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1968년에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1972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도서관을 통한 정보봉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도서자료나 논문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소장하여 보다 향상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1960년과

1977년 사이에 특수도서관의 정보봉사가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그 사이에 특수도서관의 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도서관 봉사예의 비용도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초만해도 특수도서관의 도서관 봉사가 가장 뒤쳐져 있던 분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각 기관에서의 경제적 지원과 회신기술의 도입에 힘입어 도서관 봉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3 도서관학의 발전

1957년 Peabody대학의 협조로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된 이래 1959년 이화여

대에서 대학내 정규 학과를 설치하여 1960년대에는 두 개의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도서관학과는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어 1979년까지 8개 대학에, 그리고 5개의 전문대학에 더 설치되었다. 이러한 도서관학과의 설립은 1980년도 한 해만 8개 대학과 1개의 전문대학교에서 도서관학과를 설치하면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 가운데 5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그리고 성균관대학과 연세대학(80년)에서 각각 박사과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성대에 사서교육원을 개원하여 사서 양성에 양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서관학과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도서관학과의 발전과정

설립연도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문대학	교육원
1957	연세대	연세대			
1959	이화여대	이화여대			
1963	중앙대				
1964	성균관대				
1965					성균관대
1970				부산여전	
1971		성균관대			
1972				숭의여전	
1974	경북대		성균관대	계명전문	
1976	숙명여대				
1977	효성여대				
1978	강남대	경북대			
1979	부산여대, 청주대			동래여전	
1980	계명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연세대	창원전문	

교과 과정도 초기에 타자, 영어, 한문, 일어, 음악 감상, 미술 감상 등의 과목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초록색인 작성, 정보처리, 정보검색 등의 과목이 개설되는 등 내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게 되었다(최성진, 1990: Lee & Um, 1994). 교수진의 경우 1950년대에는 조선도서관학교 출신과 Peabody교육 사절단 중심에서 1960년대에는 국내 대학의 석사 학위 소지자가 교수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국내 박사과정 이수자와 외국 유학을 마친 사람들로 교수진이 새롭게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4.4 협회와 학회의 활동

1955년 한국 도서관 협회의 재결성을 기회로 재기된 사서간의 대화와 협력은 도서관법의 제정 등 사서의 지휘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1962년 7월 전국 도서관 대회를 기점으로 도서관인의 상호 유대 강화 노력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지역별 도서관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1964년도에는 한국 도서 목록 규칙과 분류 규정을 개편하였으며 독서주간 등의 활동을 통해 대중의 독서 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도·협은 국내외에서 한국의 도서관계를 대표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실은 1969년 도서관과 국가 발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회의 유치 및 1976년 IFLA World Wide Seminar유치로 절정을 이루었다.

아시아·태평양 회의는 10개국에서 참가하여 개도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도서관의 역

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정부 및 대중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가 되었다(Kim, 1981). 1976년 IFLA Seminar는 아시아에서 또는 유럽이나 북미 밖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으며 28개국에서 한국의 251명을 포함한 416명이 참석하게 되었다(Anderson, 1976: Clarke, 1976: Vliet, 1976). 이 회의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축사에서 말하였듯이 '도서관계와 사서직의 발전이 물질, 문화적 향상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꾀하기 위한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도서관계가 만나는 기회가 되어 도서관 협회의 위상과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장이 되었다. 도·협 외에도 1968년에는 한국 서지학회, 1970년에는 한국 도서관 학회가 결성되어 사서 및 도서관계 연구자들간의 대화의 장을 넓히고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확고히 하였다(Lee, 1986).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것은 작은도서관 협회의 설립이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 이후 업대섭의 박애주의적 이상에서 시작되어 농촌 도서 지방에 독서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1961년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한국 작은도서관 협회는 업대섭의 노력에 힘입어 1963년에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내어 각 농촌 지역에 책장과 책을 분배함으로써 지방 도서관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기 힘든 민간 주도의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으로 번져갔다(Kaser, 1966: Kim, 1978). 작은도서관 협회는 각 지역에 책장과 책을 보냄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 지역에

독서회를 조직하여 그 이용에 활성화를 꾀하였다. 장서의 내용은 주로 농업, 어업, 축산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한국 문학과 동화 등도 농촌 지역 주민의 계몽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그 숫자는 1966년에 이미 5천개가 넘었다. 1970년부터 작은도서관 운동은 정부 주도하의 새마을운동과 자연스럽게 접목되었으며 문교부와 내무부의 지원 속에서 농촌 근대화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새마을문고의 장서는 기존의 주제 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가족 계획, 취미, 오락 등도 포함하여 농촌인구의 의식변화와 근대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1979년에 35,000개를 선회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의 도시이로의 확산과 더불어 도시의 사무실, 학교 등에도 작은도서관이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상기의 몇 분야에서 보았듯이 이 시기는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기이며 동시에 사서직의 발전기였다. 도서관법의 제정 발효는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발전의 기반을 이루었으며, 전문적인 도서관학 교육기관의 성장과 도서관 봉사의 확장과 더불어 사서직은 현대 사회에 재인식되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책의 저장소로만 여겨졌던 도서관은 이제, 특히 과학기술 분야와 협회의 활동으로 사서직에 대한 공중의 이해와 정부의 협조가 활발해졌으며 국내외로 그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은 도서관이나 사서직이 교육의 한 도구에서 대중의 생활 속의 산물로 그 의미가 발전적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

5. 사서직 발전의 원동력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은 사회적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 밖의 다른 요인들도 그 사회 사서직의 발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사서직의 발전이란 여러 내·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 비중의 우선 순위로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데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위가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은 그 때 영향을 끼치는 제반 요소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도서관 협회의 부단한 노력이다. 사서간의 친목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 협회는 도서관법의 제정, 대중의 독서 의식 고취, 분류 목록 등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과 같은 말은 분야에서 사서직의 전문성과 발전을 유도하였다. 또한 IFLA World Wide Seminar 등 국제적 학술회의를 유치하며 그 위치를 우리나라 영역 밖까지 알리게 되었다.

둘째, 임대섭과 같은 도서관인의 노력과 지도력에서 당시 사서직 발전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 경주 공공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임대섭은 1955년 도서관 협회 재건립에 앞장섰으며 사무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사서직의 발전을 꾀하였다. 1960년도부터는 그의 박애주의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은도서관 협회의 건립을 통하여 농촌, 어촌 등지의 도서 지

방에 독서 열기를 조성하였으며 사서직 또는 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 공헌을 하였다.

세째, 교육을 우선시 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전통도 사서직의 발전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초, 중, 고, 대학 등 교육 기관의 양적, 질적 팽창은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 감소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독서의 의욕을 고취시켜 도서관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직접적으로는 학교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넷째, 도서관 학과의 증가는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에 공헌하였다. 당시의 기간 동안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도서관학과의 수적 증가는 과히 놀랄 정도였다. 또한 도서관학과 졸업생은 현대 개념의 도서관 운영 및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이미지를 굳혀갔다.

다섯째,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의 출현은 사서직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군사 혁명을 통한 정통성이 결여된 권위주의적 정부는 그 대안으로 문화 창달과 경제 발전을 주창하게 되고 이에 모든 정치, 행정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촉진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기구의 재정비, 과학기술 분야에의 투자, 새마을 운동 등의 과정에서 도서관법의 재정, KORSTIC의 설립과 육성,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IFLA World Wide Seminar 개최 지원 등 사서직의 발전에 강력한 후원과 지원을 보냈던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은 외부에

서의 도움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KORSTIC의 건립 시 UNESCO와 프랑스의 CNRS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인도, 일본 등의 과학기술 정보센터 등과의 교류와 협조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IFLA와 같은 국제 교류 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외부의 도움이 사서직의 발전을 고무시켰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은 사서직의 내재적 요인과 외향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물론 사서직의 발전적 요인이 상기의 요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의 분석은 사서직의 발전의 사회성을 예시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역사적 기구로서의 사서직의 발전은 어떠한 추진력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영향적 요소를 파악, 분석한다는 것은 사서직 발전의 사회적 이해를 돕는 것이라 하겠다.

6. 사서직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당시 사서직의 발전은 사회의 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사서직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한 측면이란 점에서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졌으며 이러한 사서직의 사회로의 영향이 있음에 사서직의 사회적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서직의 사회 발전에의 기여는 변수라기 보다는 요인이기에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사회·역사적 틀에서 이

해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첫째, KORSTIC의 활동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의 공헌이다. 당시 국가의 정책이 과학기술분야 발전에 큰 비중을 두었던 반면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보체계가 미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KORSTIC을 비롯한 몇몇 도서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봉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작은 도서관 운동을 통한 국민의 근대화 의식의 고취이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 운동은 특히 새마을 운동과 연결되어서 지방이나 외떨어진 지역의 주민에게 독서를 통한 근대화의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이러한 도서관 이용등을 통한 대중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의 격차 해소 및 전반적 국민근대화에 일조하게 되었다.

세째, 도서관 교육 기관등을 통한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이다. 당시 도서관학교육의 확대는 세계적인 것이었으며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도서관학의 정착과 확대는 교육중시의 우리나라에 신학문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많은 사서를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 발전에서 교육적인 측면에 기여할 점이 많다 할 것이다. 물론 폭발적인 도서관학과의 설립은 결국 수요의 부족을 낳았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정보사회의 문턱에서 새로운 정보전문가의 방향으로 바뀐 만큼 도서관학과의 확장이 당시 우리나라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공헌한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넷째, 도서관법 제정을 통한 국가 체제 건설

의 확립이다. 1961년 군사혁명이후 혼란했던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자리를 잡고 안정위에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법적 장치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며 이때 도서관법 같은 사회기구에 대한 제도화는 곧바로 국가의 사회기구 설립과정과 이어졌으며 이러한 법제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정부(strong state)의 수립이 가능케 되었던 것이다.

상기의 몇가지 예 외에도 그 밖에 수많은 학교도서관의 설립, 도서관 운영의 기준 확립 등은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과 사회발전과의 관계는 사서직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상호의존하며 공생적인 것이다. 즉 사회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서직의 발전은 다시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7. 결 론

지금까지 사회적 기구로서 사서직과 사회와의 관계를 기초하여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을 알아보았다. 사서직이란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의 발전이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인 과정이기에 사서직의 발전은 곧 사회의 발전과 관계가 된다는 이론적 근거 하에 군사정부로 시작된 박정희 주도의 권위주의적 정부기간 동안에 사서직의 발전을 살펴보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우리나라

발전의 사회·경제·정치적 요소들과 사서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서직의 발전은 먼저 도서관법의 제정을 통한 사서직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른다. 이러한 도서관법 제정은 우리나라 초유의 도서관계 입법조치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봉사도 여러가지 분야에서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특히 기술과학분야에서의 발전은 우리나라 사서직의 실질적 위치확보와 대중의식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서관 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매김에 일조하면서 사서직의 도서관 봉사에 공헌하게 되었다. 또한 협회나 학회도 활발히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서직 내부의 전문성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 사서직의 전문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 속에서 여러 요인들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 사서직 발전의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도서관 협회의 부단한 노력, 도서관인의 봉사 정신과 지도력, 교육 중시의 우리나라 문화적 전통, 도서관학과의 증가, 강력한 정부의 출현 및 산업화의 추진 그리고 국제 기구들의 협조 및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또한 그 당시 우리나라 발전은 사서직의 발전에도 영향을 받았다. 즉 KORSTIC의 활동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의 공헌, 작은도서관 운동을 통한 국민의 근

대화 의식 고취, 도서관 교육 기관 등을 통한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 도서관법 제정 등을 통한 국가 체제 건설의 확립 등이 그 몇 가지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사서직의 발전은 우리나라 발전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W. W. Rostow(1960)의 발전 과정 중의 발전기(take-off stage)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회의 발전은 사서직의 발전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시기를 '발전'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 변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 '발전'과 반대가 되거나 상이한 견해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사회나 사서직의 발전은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계속 될 때만 그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또한 다른 시기 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되는 연구도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 정보센터. 1972. 한국 과학기술 정보센터 10년사. 서울: 과학기술 정보센터.
- 국회 사무처. 1987. 국회 사무처 30년사 (국회 도서관 편). 서울: 국회 사무처
- 도서관 협회. 1977. 한국 도서관 협회 30년사. 서울: 도서관 협회
- 정병완 & 신학균. 1971. 국립 중앙 도서관사. 도서관, 26(3), 4-69.

- 최성진. 1990. 도서관(문헌정보)학과 평가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0년사.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 D. 1976. "Summing up of the professional sessions of the IFLA seminar at Seoul." *IFLA Journal*, 2(3), 164-167.
- Apter, D. E. 1967.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ger, P. L. 1972. "Sociology of knowledge." In Budd, R. W. & Ruben, B. D.(ed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human communication*. Rochelle Park, NJ: Hayden Book co.
- Clarke, T. C. 1976. "IFLA World Wide Seminar, Seoul, Korea." *IFLA Journal*, 2(3), 159-163.
- Domar, E. D. 1957.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Fair Lawn, N. J.: Oxford University Press.
- Eckert, C. J. et al. 1990. *Korea: Old and new, a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isenstadt, S. N. 1973. *Tradition, Change and Modern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Eisenstadt, S. N. 1974. "Studies of Modernization and Sociological Theory", *History and Theory* 8, 225-52.
- Haggard, S.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Hanks, G. & Schmidt, J. 1975. An alternative model of a profession for libraria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6(3), 175-187.
- Horowitz, I. L. 1972. *Three worlds of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nkeles, A. & Smith, D. F. 1974. *Becoming Modern*, London: Heinemann.
- Kaser, D. 1966. "Korean micro-libraries and private reading rooms." *Library Journal*, 91(2), 6035-6038.
- Kim, C. H. 1978. "Reading public of the mini-libraries in rural Korea." *Libri*, 28(3), 215-227.
- Kim, C. H. 1979. "The mini-library movement in rural Korea: A

- successful experience with a rural public library alternative."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11(4), 421-440.
- Lee, P. S. & Um, Y. A. 1994.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Korea*.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Lee, P. S. 1986. Korea, Republic of.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Lerner, D. 1964.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Modernizing the Middle East*, New York: The Free Press.
- Lewis, W. A. 1955.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Allen and Unwin.
- Lim, H. C. 1985. *Dependent development in Korea, 1963-1979*.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Moore, W. E. 1963.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Myers, M. 1986. "Librarianship."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Nahm, A. C. 1988.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Elizabeth, NJ: Hollym.
- Patterson, O. 1977. "Slave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 407-49.
- Pye, L. W. 1966.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An Analytical Stud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Robinson, J. 1962. *Economic Philosophy*, Chicago: Aldine.
- Rostow, W. 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ra, J. H. 1972.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Wiley-Becker & Hayes.
- Smelser, N. J. 1968. *Essays in sociological explan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Smelser, N. J. 1973. "Toward a Theory of Modernization", pp. 268-84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 Solow, R. 1970. *Growth Theory: An Expo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liet, D. V. 1976. "IFLA World Wide Seminar at Seoul." *IFLA Journal*, 2(3), 155-159.